

외환: 안전자산 선호로 추가 상승 모색

김 영 준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엔화 약세와 외국인 주식매도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달러화는 12월 금리인하 가능성 축소 및 엔화 약세 등으로 강세를 지속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저금리를 선호하는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구조적인 달러화 실수요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추가 상승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엔화 약세와 외국인 주식매도, 美 금리동결 가능성 등으로 급등

- 원/달러 환율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 선출에 따른 엔화 약세에 연동되며 약세를 보였으며,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대규모 매도로 상승폭 확대
 - 외국인은 11월 1~20일 동안 KOSPI 시장에서 9.5조원의 주식을 순매도
- 이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美 연방정부 섣다운 종료 기대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475원까지 급등했지만, 당국의 구두개입과 역외 손절성 룩스탑 등에 상승폭이 일부 축소

■ [국제 환율] 달러화, 엔화 약세와 연내 금리동결 가능성으로 강세

- 美 달러화는 상호관세 패소 가능성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연방정부 섣다운 종료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엔화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강세 기록
 - 10월 FOMC 의사록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연내 금리동결이 적절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진 것도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 유로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심화와 엔화 약세 등으로 약세
 - 키어 스타머 총리 퇴진론이 부상하고 영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영국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유로화에 부정적
- 日 엔화는 일본 정부가 20조엔을 상회하는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악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
 - 일본은행 총재와 재무상·경제재생상의 3자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조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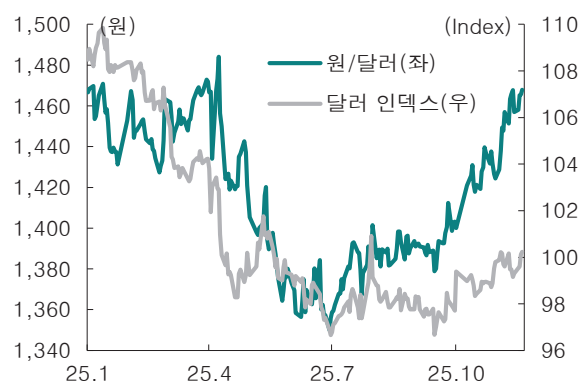
■ 재정지출에 적극적인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으로 일본은행 스탠스도 변화할 가능성

- 이시바 총리 후임으로 다카이치 사나에가 우여곡절 끝에 신임 총리로 선출
- 이시바 전임 총리가 엔화 강세와 임금 인상 등 ‘아베노믹스’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반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아베노믹스’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입장
 - 주요 정책기조: 재정지출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AI 및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
-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으로 금리인상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접근할 가능성
 - 시장 참여자는 日 정책금리를 '26년말 0.94%, '27년말 1.19% 수준으로 예측
- 美·日 금리차 축소와 미국의 엔저 견제 등은 엔화 강세 요인이지만, 재정지출에 적극적인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과 일본은행의 신중한 금리인상 스탠스 등을 고려할 때 엔화 강세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

■ 원/달러 환율, 안전자산 선호와 구조적 달러 수요로 추가 상승 모색 예상

- 원/달러 환율은 엔화 약세가 촉발한 강달러와 AI 버블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추가 상승을 모색할 전망
 - 수입업체 결제수요와 해외투자로 인한 구조적 달러 실수요도 원화 약세 요인
- 다만 외환당국이 구두개입, 미세조정 및 수출업체 물량출회 유도 등의 환율 안정 조치를 통해 일방적인 원화 약세 기대를 중화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은 1,430~1,490원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전망 

■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 Bloomberg

■ 日 아베노믹스 對 이시바노믹스 비교

	아베노믹스 (스가·기시다·다카이치)	이시바노믹스
최종 목표	장기불황 및 디플레이션 탈출	사회 불평등 해소 내수 회복
통화정책	양적완화(QE) 초저금리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인상
재정정책	재정지출 확대 SOC 투자	건전재정 중시 금융소득세 강화 법인세 인상
환율정책	엔화약세 유도	엔화강세 용인
노동정책	여성·노인 고용 확대 이민 규제 완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 유입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